

## 성동구,에너지 절약, 이젠 선택 아닌 필수!

- 환경단체, 공동주택,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협의체 구성

기사입력 2015-08-17 10:32:10 수정 2015-08-17 10:32:10



[뉴스에이=김정석 기자] 지난 13일 성동구청 전략회의실에서 성동구와 6개의 단체가 ‘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 협약을 맺었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서울시 성동구(구청장 정원오)는 지난 13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에너지 의제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역량 있는 단체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인 ‘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이는 지난 3월에 협약을 체결한 ‘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에너지 나눔을 위한 가스업체 네트워크’에 이은 성동구의 두 번째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다.

‘성동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은 성동구와 금호대우아파트, 대성유니드아파트,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, (사)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, 성동구 주부환경연합회, 마을공동체 행복공감이 참여한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이 협의체는 ▲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 발굴 및 추진 ▲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실천 ▲‘CO<sub>2</sub> 1인 1톤 줄이기’ 캠페인 홍보 ▲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지도 등 전력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기적인 공동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·나눔·참여의 가치 구현과 「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, 성동구」 실현을 위한 민·관 상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정원오 성동구청장은 “ ‘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 은 성동구가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.

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고 당부했다.

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
김정석 기자 rla7970@hanmail.net

---

뉴스에이 © All rights reserved.